

이재명 “尹, 노동자제거 대상으로 봐…정권 존재 이유 없어”

21일 건설노동자 故 양희동씨 영결식
이재명 “평범한 노동자가 건폭 물려”
이정미 “원희룡 사퇴…정권 심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희동(60)씨의 영결식에서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노동인권을 탄압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문 세정 앞에서 열린 양씨의 영결식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노동자가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사망했음에도 이 정권은 일말의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조금씩 개선되던 우리 노동 현실이 지난 1년간 너무나 많이 퇴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의 폭력적인 노동 탄압에 양희동 열사는 생명을 던져 항거했다”며 “노동자

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전태일 열사가 사망한 지도 53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뺏기고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으로 몰렸다”며 “강기윤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재현하려는 시도까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비정함에 분노를 느낀다”며 “정당한 노동권을 부정하고 노동인권을 탄압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조작으로 진실을 잠시 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양희동 지회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정권은 눈에 불을 켜고 다음 희생양을 찾고 있다”며 “건폭 물이로도 모자라,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의 죽음

을 방치한 파렴치범으로 건설노조를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권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분신 방조’ 언급으로) 패륜을 일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노동 탄압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양희동 동지의 억울함을 푸는 길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것”이라며 “건설노조를 탄압하며 사냥하던 경찰이 이제는 집회결사의 자유마저 사냥하는 지경이다. 건설노조와 민주노조를 지켜내지 못하면 이 사회 민주주의도 지켜낼 수 없다”고 했다.

박석운 전국민중쟁쟁 공동대표는 “양희동 동지의 억울한 죽음은 건설자본의 앞잡이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수구 적폐 언론과 경찰, 검찰 등이 합작해 만들어 낸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을 맡았던 양씨는 노동절인 지난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이튿날 숨졌다. 양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수사받았다.

양씨의 발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건설노조

는 정부의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 양씨 사망 이후부터 지금까지 장례를 종료하지 않고 있었다.

변용일기자

이재명,尹 수능 발언에 “교육 현장 아수라장…원점서 재검토해한다”

“尹, 교육 최대 리스크…대혼란 초래하고 나몰라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이 교육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 속대발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

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으면서 대통령 두둔하는 데 여념 없다”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한 이후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뒤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수능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이유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며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할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도 바꾸려면 정말 깊은 고심, 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비기자

김기현, 이재명 ‘불체포’ 포기에 “친명 혁신위 반발 억제 차원”

“자신의 선명성 드러내면서 비명계 반발 억제”
“이재명, 개딸 팬덤 관계 정리해야…국론 분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 “친명계 혁신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비명계의 반발을 사전 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김 대표 초점 편집인 토크’에서 “민주당 대표가 직접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문제는 실전 의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혁신위가 초창기에 발족하면서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한 사람이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 혁신이 아니라 반혁신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니 그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내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이 대표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새 혁신위원장을 내정했지만, 혁신위

원 7명 중 5명 혹은 6명이 친명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게 무슨 혁신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이런 국면을 예견했기 때문에 혁신위 명단을 최종 발표하기 전에 먼저 불체포특권 포기로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비명계의 여러 반발을 사전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이 추측이 사실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당연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원 전원의 서약을 받아내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전원 서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이 대표를 향해 “흔히 개딸이라고 불리는 팬덤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당내 잇따른 리스크에도 지지율이 오르는 민주당과 정세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비교하며 “지지율이 급하게 반등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진영이 딱 쪼개져 있고, 팬덤 현상이 고착하면서 국론이 양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론 양분 고착화에 따른 두려움은 우리 당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두려움이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과연 제대로 된 공동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란 두려움”이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더 이상 이와 같은 팬덤에 이끌려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염두에 둔 듯 “우리 당에도 강한 주장을 가진 분들이 있다. 마치 우리 당이 종속돼 있거나 무슨 지시에 따른다거나 하는 형태의 발언을 한 분이 있어서 매우 불쾌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과 저는 그런 계획도 없다. 오해가 없으면 한다”고 정리했다.

김 대표는 나아가 “우리 당이 보다 중도도 외연을 확장해 진영을 깰 수 있을지 노력해야 한다”며 “취약지역 진출을 위해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고,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